

북한 여성의 인권과 연구방법론적 모색: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과 가능성

이희영(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제기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후 부다페스트에서 서독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년에 걸쳐 노소(老小)를 구분할 수 없는 여성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몸’이라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들이었다. 2003년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한 사진전에는 체제 변화 이후 구소련 지역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 중 ‘중년부부’가 등장한다.¹⁾ 전시 자료에 따라 맥락을 구성해보면, 1990년대 중반 한적한 시골길에 남편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먼 산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부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려 아랫도리를 보이고 있다. 필자를 놀라

1) Weski Dexter, Emma; Thomas Weski, *Cruel and Tender: The Real in the 20th Century Photograph*(London: Tate Bunn, 2003). 이 자료는 당시 전시된 사진의 일부를 모아 출판한 것이다.

게 한 것은 이들의 무심한 표정이었다. 카메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사진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무표정은 생존 앞에서 성적 수치 따위는 사치임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1990년대 중반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사회의 여성들이 열악한 삶의 조건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신매매, 매매혼, 성폭력, 강제 성매매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조사 연구들이 있다.²⁾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 보고서들은 “차라리 팔 수 있는 몸이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현실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³⁾ 전쟁, 지역분쟁, 사회갈등, 체제위기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사회의 소수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쉽게 권리의 박탈을 체험하게 된다.⁴⁾ 특히 여성들은 급속히 ‘성적 대상물’로 전락하게 된다.⁵⁾ 이와

-
- 2) 이와 관련된 자료는 크게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서울: 정토출판사, 1999);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14호(2005), 6~34쪽과 같은 탈북주민들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와 이영심, “두만강을 두 번 넘나들기까지 좁쌀알처럼 흩어진 탈북자들, 과연 그 수는 ……,” 북한연구소 펴냄, 『북한』, 제418호(2006), 174~181쪽; 최진이, 『국경을 세 번 건너 여자, 최진이』(서울: 북하우스, 2005) 등 당사자가 쓴 수기류, 그리고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보』, 제6집 1호(2002), 241~264쪽;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2006), 33~55쪽;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삶,”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관련 연구보고서』(2005), 419~438쪽과 같이 이를 기초로 하여 집필된 학술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 3) 오랫동안 (사)좋은벗들에서 북한이주민을 위해 활동해온 한 실무자와의 2006년도 인터뷰 내용을 참조했다.
- 4) 소수자는 집단의 규모나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과의 관계로 이해된다. 또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소수성’은 새롭게 구성되는 개념이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서울: 후마니타스, 2008), 12~64쪽.
- 5)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발생한 각종 전쟁과 종교 및 인종 분규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 Medica Mondiale e.V.; Marlies W. Froese; Ina Volpp-Teuscher(eds.), *Krieg, Geschlecht und Traumatisierung: Erfahrungen und Reflexionen in der Arbeit mit traumatisierten Frauen in Kriegs- und*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식량위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들은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도덕과 윤리가 변화하고, 살기 위한 선택이 최선으로 여겨지는 행위원리가 일상에서 관철됨으로써 사회적 위계의 아래쪽에 위치한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사회에 대한 현장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조건과 ‘인권’ 자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심층적인 연구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북한 사회를 ‘탈출’한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에 의지해 연구를 진행할 때 생기는 자료의 ‘편향성’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인권’이 갖는 보편성과 함께 ‘북한 여성의 인권’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자료를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부재를 들 수 있다.⁶⁾ 이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제기에 주목해 이 연구는 북한 여성의 인권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이 갖는 적극적인 함의와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⁷⁾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첫째, 북한 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방법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토론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적 과제와 연관해 질적 연구방법론의 원리를 논의한다.⁸⁾ 셋째, 질적 연구방법론이 북한 여성의 인권 연구에

Krisengebieten(Frankfurt am Main: IKO-Verlag fue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1999).

6) 사회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근대 사회의 인권이 갖는 다면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했다. 조효제, 『인권의 문법』(서울: 후마니타스, 2007).

7) 북한 사회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연구방법론 사이에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 연구의 대상을 여성인권으로 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기존연구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할 것이다.

서 갖는 적극적인 합의와 가능성을 고찰한다.

2.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존 연구와 방법론적 과제

북한 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존연구를 방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법조항 및 각종 기관이 발간한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⁹⁾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국경을 넘는 개인들의 수, 성별구성, 지역분포, 생활상태 등에 대한 ‘탈북현황조사’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법제도와 북한 정부 및 기관들이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북한 사회의 여성권 및 인권상황의 변화를 추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제도 및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북한사회의 여성권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생산한 자료의 ‘발생적 한계’를 민감하게 인지하면서 자료의 이면을 ‘해석’하고 재구성하

8)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넓다. 대표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학과로부터 시작된 참여관찰과 인류학의 민속기술지, 1960년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연구, 일상사 연구 및 생애사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연구의 공통점을 생애사 연구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생애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senthal, Gabriele,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Frankfurt/New York: Campus, 1995);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120~148쪽; 이희영,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체험과 서사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5호(2007), 98~133쪽.

9) 대표적으로 다음의 최근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131~141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8), 225~238쪽. 후자의 보고서는 제도 및 문헌분석과 함께 탈북자 인터뷰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이라기보다는 구술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는 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¹⁰⁾ 그뿐 아니라 북한 정부나 조직의 공식적인 문헌자료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다가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자의 연구 중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국경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상태를 보고한 초기의 조사연구는 매매혼과 강제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비(非)인간적 상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¹⁾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는 기존의 양적 자료를 정리해 북한과 중국 국경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와 같은 통계 자료들이 갖는 ‘의미(meaning)’를 읽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¹²⁾ 또한 필자는 탈북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북한사회구성원이라는 모집단에 대해 표본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이른바 ‘대표성’의 문제)는 양적 연구 내에서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탈북 이주민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북한 사회 내의 인권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¹³⁾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이나 자료 자체의 결정적 한계가 아니라 그로부터 어떤 연구로 나아가는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개별 사실에 대한 범조항이나 공식 문헌 및 양적통계에 기초하여 현실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나, 인권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재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권은 제

10) 국가(state)가 생산한 자료가 갖는 한계를 인권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논의한 다음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효제, 『인권의 문법』, 263~275쪽.

11)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12) 대표적으로 다음의 예를 참고하라.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6~34쪽.

13) 예를 들어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를 고찰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도나 사건으로 축소될 수 없다. 인권은 삶의 일상에서 구조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존의 문헌 및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공식 문헌 및 양적자료의 한계를 넘어 북한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탈북이주민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사실 관계의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접하게 된다.¹⁴⁾ 이것은 연구자들이 질적 자료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없이 이미 전제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단순 인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텍스트의 사실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예를 들어 (사)좋은벗들이 2007년 11월 발간한 북한의 여성권에 관한 보고서는 다른 어떤 연구도 접근할 수 없는 1차 자료에 근거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¹⁵⁾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보고서는 주요 문헌자료 혹은 구술자료의 맥락(context)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용함으로써 ‘~카드라식’의 주장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의 재구성(reconstruction)이 아니라, 저자의 주장을 방증하기 위한 증거로만 활용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¹⁶⁾ 물론 여기에는 자료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숨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조사된 각종 일차자료를 대하는

14)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작,” 한국인권재단 엮음, 『한반도 평화와 인권 2』(서울: 사람생각, 2002), 73쪽;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방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330~331쪽.

15) (사)좋은벗들,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서울: (사)좋은벗들, 2007), 99~120쪽.

16) 이 보고서의 해당 인용문의 경우 구술자와 인용자료의 생성과정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술내용의 ‘맥락’을 고려한 분석 없이 구술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

연구자의 기계적 관점과 태도이다. 예컨대 인터뷰 당시 구술자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은 구술자 보호를 위한 배려 속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인용된 텍스트가 전체 구술 텍스트에 대해 갖는 연관성을 언급함으로써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독자의 ‘재해석’ 및 공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도 자료를 대하는 연구자의 기본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질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질적 자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자료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조사하고 다루는 연구자들의 ‘기계적인’ 관점과 연구태도가 초래하는 문제이다.¹⁷⁾

셋째, 이와 같은 질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중요하게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연구자의 선입관에 의한 자료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다.¹⁸⁾ 나아가 잘못된 해석에 의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자료를 대하는 자신의 관점(frame)을 성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1960년대 인문사회과학의 실증주의 논쟁은 연구자 또한 자신이 연구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¹⁹⁾ 그러나 이를 중요한 연구의 원리로 실천하는 현장연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집결지 화재현장에 발견된 ‘종이로 접은 학이 든 유리병’에 대한 해석이

17) 대표적인 특징으로 모든 (광의의) 텍스트(구술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는 과거 체험에 대한 사실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사후적 재해석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2005).

18) 김근식, “북한의 인권,” 74쪽;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방법,” 333쪽.

19) 1961년 독일 사회학대회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아도르노와 하버마스가 포퍼와 알베르트 등의 비판적 합리주의자들과 벌인 논쟁으로, 개별 데이터나 사실의 사회 역사적 총체성 및 학문의 몰가치성 등이 중요한 논점이었다. Adorno, T. et al.,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Frankfurt am Main: Luchterhand, 1972).

좋은 사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감금상태로 강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가졌던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상황에 익숙한 현장 활동가들은 이 종이학이 단골 성구매 남성들에게 제공되던 대표적인 ‘선물’이었다고 지적한다.²⁰⁾ 이처럼 질적 자료를 대하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과정에서 반성되지 않는 경향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고려한 연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한 연구는 최근 북한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성매매 현상’을 “생계유지형 성매매와 일신의 안락을 위한 성매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분법적 도식으로 분석하고 있다.²¹⁾ 그러나 앞의 연구 논문에는 이와 같은 타자의 분석도식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맥락과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확인되지 않는다.²²⁾ 따라서 여성과 아동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현재 북한사회의 형편에서 ‘생계유지형 성매매’와 질적으로 구별

20) 이는 성매매 관련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사)막달레나공동체의 연구 과정에서 논의된 사례이다.

21)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삶>. 필자는 한국사회의 성매매를 이와 같은 이분법으로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조사한 일차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 결과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외부에서 편의적으로 분류한 도식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유사한 경우로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된 성매매의 구분이다. 특히 한국의 성매매 현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양자가 현실 속에서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생애과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회영,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22) 기어츠(Cliford Geertz)에 의하면 이 용어는 조사 자료의 집적에 기초한 ‘얇은 기술(thin description)’과 달리 텍스트의 맥락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해를 통해 상호 교차하거나 복합적으로 얹힌 개인 행위자의 체험세계에 다가가는 접근법을 뜻한다. 해석자에 따라 ‘두터운 기술’ 혹은 ‘층층한 기술’로 번역하기도 한다.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New York: Basic Books, 1973), pp.3~32.

되는 ‘일신의 안락을 위한 성매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인권 연구자의 해석의 자원이 갖는 편파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²³⁾ 예를 들어 서구사회의 문제를 평가하는 기준과 북한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소위 ‘이중 잣대’의 문제이다.²⁴⁾ 북한의 여성권에 대한 한 연구에서 북한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언급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읽힌다.²⁵⁾ 연구자가 생물수업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성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1차 자료에 대한 제시도 없이 등장하는 위의 언급은 다분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처지와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자의적 비판’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²⁶⁾ 이와 달리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개인 혹은 조직들이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이 ‘투명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북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으로 이동수단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가치를 갖는다.²⁷⁾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존연구의 방법론적 문

23) 이 문제는 세 번째의 해석의 문제에 속한다. 다만 인권문제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따로 분류했다.

24) 김근식, “북한의 인권,” 74쪽; 홍민, “북한 연구방법론 재고,” 『정치비평』, 상반기(2003), 193쪽.

25)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삶”(2005).

26) 노옥재,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 9~16쪽.

27) 위의 글, 13~14쪽.

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개인의 ‘인권’은 법제도나 계량화된 수치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 전통에서 수행된 소위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북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기술통계의 수준에서 그려내는 조사연구의 반복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때 ‘이해(understanding)’ 가능하다. 인권의 문제는 법조항 혹은 ‘사건(happening)’으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구술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쌓아온 성과를 전유하고, 이를 현장연구에서 실천해야 한다. 특히 사회 현실(social reality)과 연구자 사이의 관계 및 텍스트 분석과 해석의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연구가 기존 인문사회과학 내에서의 연구 성과를 간(間) 학문적(interdisciplinary) 관점에서 전유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의 성차별 및 폭력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문제는 북한연구라고 하는 ‘지역연구’의 울타리를 넘어서 젠더연구의 풍부한 성과와 인권문제의 특성을 아우르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 북한 주민 일반의 인권문제와 비교하여 북한 ‘여성’으로써 체험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기초로 한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 질적 연구 방법론의 원리와 북한여성의 인권연구에서 갖는 함의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기초로 질적 연구 방법론의 공통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론이 북한 여성 인권연구에서 갖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1) 질적 연구방법론의 원리

(1) 행위자의 일상체험에 다가가는 연구 자료의 생성

일상세계(everyday world)는 연구자의 개념과 이론에 의해 추상화되기 전(前)의 세계이며 사회·정치적 제도(institution)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포괄한다. 즉, 개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식의 세계이다. 일상세계는 타자와 공유하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private life)과 구별된다.²⁸⁾ 질적 연구는 제도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행위와 이것의 구성물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의 상호적 행위로 구성되는 일상생활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위한 연구방법(methode)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지역, 정치의식, 소비수준, 문화성향 등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채택된 범주에 의해 계량화된(코딩) 자료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체험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예로 질적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위자가 생산한 자료(일기, 메모, 사진, 녹음, 자서전 등)와 구술을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삼는다. 나아가 이와

28) Schütz, Alfred; Thomas Luckmann, *Strukturen der Lebenswelt. Bd.I*(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8), pp.25 ~ 29.

같은 특성을 고려한 서사적 인터뷰(narrative interviews)²⁹⁾ 등을 통해 과거 체험에 다가가고자 한다. 서사적 인터뷰는 구술자의 자유로운 서사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자의 질문에 의해 유도된 구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조사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2) 텍스트의 구성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

질적 연구에서 (광의의) 텍스트는 구술녹취록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진, 영상자료, 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자료를 포괄한다. 이와 같이 문헌이나 구술의 형태를 띤 모든 텍스트는 특별한 상호작용의 생성물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특성을 갖는다. 즉,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타자를 염두에 두고 쓰이거나 이야기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북한사회의 공적인 발간물에 쓴 글과 제3국에서 쓴 문헌 자료는 서로 다른 발생의 배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연술이 어떤 독자를 고려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텍스트 생성과정이 갖는 담론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 속에는 과거 체험의 사실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사후적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지나간 체험은 항상 말을 하는 현재, 여기에서의 기억을 매개로 회상되고 쓰이거나 말해지기에 끊임없이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에 놓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시기의 체험은 이전 시기의 체험을 배경으로 함과 동시에 이

29) 대표적으로 언어철학의 ‘서사성’에 근거해 인터뷰의 원리를 구성한 다음 작업을 참고하라. Schuetze, Fritz,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Martin Kohli; Günther Robert(eds.),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Stuttgart: J. 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1984), pp.79~117. 서사적 인터뷰에서 중요한 점은 구술자의 생애사적 관점에 대한 고려이다.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 133~135쪽.

후의 체험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다. 이는 곧 생애사(life history)가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 자료로서의 각종 텍스트는 어떤 내용이 어떤 형식을 통해 쓰이거나 구술되는지에 주목해 분석·재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았던 생애사(a life as lived),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 체험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비교와 재구성 방법이 있다.³⁰⁾

(3) 연구자의 관점에 대한 성찰과 가설추론적 재구성

질적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구술자 혹은 연구대상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자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는가도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다. 연구자의 태도에 따라 구술자의 상호작용(구술내용)이 달라지며, 연구자의 관점에 의해 조사자료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장과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연구과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연구결과가 분석되고 해석되는 근거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독자에 의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한 가설추론(abduction)의 원리를 기초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에 갇히는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시도한다.³¹⁾ 예를 들어 텍스트에

30)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분석적 차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enzin, Norman, K. *Interpretive Biography*(London: Sage Publications, 1989), p.30; Rosenthal, Gabriele,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31) 귀납과 연역의 모델을 연결한 나선형적 추론양식으로 미국의 철학자 퍼스(C. S. Peirce)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와 연관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하라. 다네마르크, 베르트 외,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이기홍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149~190쪽.

등장하는 하나의 사실(현재)에 근거해 그 이전(과거)의 행위 내용을 추론하고, 이어지는(미래)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나선형의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추론의 연속 과정에서 연구자는 가능한 해석의 자원을 통해 텍스트의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동시대에 존재하는 각종 통계와 기록자료, 다양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이론과 설명 등이 텍스트의 세계를 읽는 해석의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적 토대는 무엇보다 북한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판되었던 연구자의 이념적 편향성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³²⁾ 나아가 21세기 북한 여성의 인권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상식의 지평에서 젠더를 기초로 한 ‘차이의 정치학’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빠질 수 없는 해석의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여성 인권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이 갖는 가능성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본 질적 연구방법론의 주요 원리가 북한 여성의 인권 연구에서 갖는 가능성과 함의를 살펴본다. 이론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필자가 수행한 사례분석을 소개할 것이다.³³⁾

32) 북한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존의 논쟁과 모색은 다음을 참고하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33) 이 글의 목적이 본격적인 사례연구가 아니라 방법론의 함의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술사례는 연구방법론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제한하여 소개될 것이다. 소개되는 세 사례는 필자가 탈북 여성에 대한 연구를

(1) 일상생활(everyday life) 속에서 구성되는 여성 인권에 대한 고찰

북한은 1946년 6월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제3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위한 제도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86년 이래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휴가를 통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법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최근 형편이 좋지 못한 국영기업에서 여직원의 휴직과 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고 식량위기 이후 모성근로자가 먼저 해직된다는 보고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여성 우선 퇴직 사례에서 보이는 가부장적 관행을 짐작하게 한다.³⁴⁾ 그러나 최근 개인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자료는 성문화된 여성들의 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양성관계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구술자들의 생애사에서 등장하는 폭력에 대한 체험과 결혼관계에 대해 주목해보자.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나 북한 작가동맹 소속 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주희 씨³⁵⁾는 2006년 5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가부장의 폭력과 어머니의 자살’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소개했다. 구술자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2005년 발간한 자전적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남 이녀 중 장녀인 나에게 어머니는 늘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위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인터뷰한 사례 중 일부이다.

34) 북한 여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했다. 백영옥, “중국 내 탈북여성실태,” 243~245쪽.

35) 이 글에서 언급되는 구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능한 정보의 내용을 바꾸었다.

하다가도 밥에 돌이 있다며 밥상을 들어 부엌에 내치던 아버지,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어머니의 귀찮을 때리는 일 정도는 밥 먹듯 하던 아버지. 아버지의 장기간의 구타로 병이 들어 귀가 멀고 고혈압이 오고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 그 때문에 여덟 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나(김주희, 2005: 24).

사례분석에 의하면 구술자의 어머니는 남편보다 유복한 집안 배경과 일본 유학이라는 학력을 가졌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구술자가 여덟 살 되는 해인 1967년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광폭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위의 사후적인 기술에서 그 당시 느꼈을 법한 격한 감정이 거세되어 있지만, 전체 사례분석에 의하면 구술자가 어린 나이에 겪었을 폭력에 대한 공포와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김주희, 2006: 1/2).³⁶⁾ 이 사례에서 우리는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서 남성가부장이 부인에게 행사한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폭력이 죽음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41년 함북지역에서 태어난 김열란 씨의 아버지는 지역 은행을 소유한 자본가로 1947년 월남했다. 한 달 뒤 데리고 가기로 한 부모님과 헤어진 구술자는 이후 외할머니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다. 구술자는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양원으로 근무하다 1960년대 중반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회연구사와 결혼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다가 1974년 이모가 정치적 숙청을 당한 것이 근거가 되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혼됐다”(김열란, 2006: 1/8). 사례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이혼에 대한 성문법적 규정과 달리 출산을 여성의

36) 이것은 이 글에서 구술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김주희 씨의 2006년 1차 인터뷰 녹취록 중 2쪽에서 인용했다는 뜻이다.

책임과 의무로 돌리는 봉건시대의 관행이 사회주의 북한사회에서 ‘이혼’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 행동에 대한 가족의 연대 책임이 개인의 결혼권에 우선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북한사회주의 체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정치·문화적 제도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확장되거나 굴절되고 있다.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 가부장의 일상적인 폭력은 많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례 그래왔던 습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폭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관계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³⁷⁾ 오랫동안 가부장의 폭력은 한국사회에서도 ‘사적인 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남성들의 폭력을 체험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문화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는 여전히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의 제약과 침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문화화된 형식’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와 같은 일상의 체험에 주목하며, 삶의 일상 속에서 구조화되는 인권의 구체적 현실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2) 언어화되지 못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대한 체험의 재구성

기존의 각종 연구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신매매와 성폭력, 강제 결혼 및 성매매를 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인권침해의

37)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조는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⁸⁾ 식량위기가 시작된 초기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여성들이 단독으로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 친인척이 없는 경우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호의에 의지하다가 약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중국인에게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적인 돈거래가 성립되어 매매혼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이 경우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후 불법 국경이동이 급증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안내인(일명 부로커)들이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중국으로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유인해 중국 각 지역으로 팔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례나 북한 내에서 성매매 사실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으로 온 북한 여성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경우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이 북한 안과 밖에서 매매혼, 인신매매 혹은 성폭력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혀 있다. 이와 비교하여 앞에서 살펴본 김주희 씨의 사례 연구는 다른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1998년 5월 정치적인 이유로 평양에서 추방된 김주희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청진 근처의 국경지역을 해마다 사촌동생이 소개한 부로커의 안내를 받으며 1998년 7월 11일 북한 국경을 넘었다. 중국으로 온 구술자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매매혼을

3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79~286쪽.

승낙하고 한족과 결혼했다. 그러다가 9월 경 다시 강을 건너 북한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살길을 찾아 조선족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다시 연길지방에서 온 남자와 동거했다. 그러나 사례 분석에 의하면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력으로 구술자와 아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월 어느 날 구술자는 피와 땀투성이 내복바람으로 아들을 안고 인근 교회의 정문으로 뛰어들어 도망했다. 단행본 자서전에서 구술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시기의 체험을 10여 쪽에 걸쳐(272~286)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³⁹⁾ 이 글은 어떤 다른 자료에서도 알기 어려운, 신체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북한 여성의 구체적인 체험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전업 작가였던 구술자의 비상한 작가의식의 결과이다. 텍스트 분석에 의하면 구술자는 중국으로 오면서 시민권을 상실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중국 국민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구술자는 생존을 위해 몇 번의 매매혼을 거치면서 결국 한 중국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물이자, 폭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 즉, 구술자의 체험은 한 여성이 북한 최고 엘리트에서 폭력과 성행위의 노예가 되는 급격한 신분하락과 인권침해의 과정을 보여준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여성구술자들은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슷한 경로를 통해 중국 각지로 매매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술자는 이를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기억”으로 표현한다. 또 다른 구술자는 중국에 머물던 3~4년 동안의 시기

39) 작가인 구술자는 생존을 보존하기 어려운 탈북과 한국행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간직했다. 이후 구술자는 이 시기의 기록을 토대로 단행본 수기를 발간했다. 필자는 이 작업이 구술자가 겪은 인신의 구속과 폭력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시에 구술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를 ‘그럭저럭 지내던 때’라는 한 줄로 압축함으로써 그 이상의 언급을 피하기도 한다.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국경을 넘고, 인신의 자유를 상실하고 구타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비(非)인간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온 남성들의 경우 동일한 불법 이주자의 신분이지만 성적 노예의 신분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성적 위계에 의한 구획이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는 성차별을 통해 더욱 가혹해지는 특성을 띠고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체험은 대부분 언어화되지 못한다.⁴⁰⁾ 정신적 상처와 결합된 성폭력의 경우 다양한 방어기제를 통해 망각되거나 분절화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⁴¹⁾ 이와 같은 경우 인권문제는 단순히 숨겨진 보물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찾기만 하면 금방 ‘보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한 사실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⁴²⁾ 앞선 예와 같이 여성과 미성년 아동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의 구체적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화(肉化)되거나 분절된 기억 혹은 망각으로 존재하는 인권의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 질적 연구의 해석학적 방법론이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언어화된 사실만이 아니라 행간을 읽고 해석

40) Loch, Ulike, “Grenzen und Chancen der narrativen Gesprächsführung bei Menschen mit traumatischen Erlebnissen in der Kindheit,” Schaeffer et al.(ed.), *Qualitative Gesundheits- und Pflegeforschung*(Göttingen Bern, Toronto & Seattle: Verlag Hans Hube, 2002), pp.233 ~ 246.

41) Terr, Lenore, *Schreckliches Vergessen, heilsames Erinnern. Traumatische Erfahrungen drängen ans Licht*(Muenchen: Kindler, 1997).

42) 조효제, 『인권의 풍경』, 34쪽.

하는 가설추론적 텍스트 재구성 방법은 파편화된 체험으로 존재하는 ‘인권 부재의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법이다.⁴³⁾

(3) 생애를 통해 장기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여성권에 대한 이해

북한 이주민의 적응실태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북한에서 구성된 가족관계 및 탈북 과정에서의 체험과 연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⁴⁴⁾ 특히 위에서 언급한 매매혼과 성폭력을 체험한 북한 여성들의 경우 남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내면적 갈등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권과 사회권을 온전히 부정당했던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남한사회의 공적영역에서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혼전순결’ 혹은 ‘현모양처’ 등의 담론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김주희 씨의 경우 자서전 집필을 통해 자신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비해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6세의 나이에 가족을 두고 혼자 중국으로 건너온 유지민 씨의 경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지, 계속 돌아보면서, 아 그랬었
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어떡해, 나는 그래서 정말 수치심을

43)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 136~143쪽.

44) 조영아·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호 1권(2005), 17~35쪽.

느끼거나 거기 매달려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 거 같아요. 그걸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래, 그때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 걸 내가 어떻게 바꾸랴, 그걸 지워버릴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랬던 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유지민, 2008: I/16).

위의 텍스트에서 유지민 씨는 그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어보았을 자신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유지민 씨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젊은 여성들과 부분적이나마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체험은 서로 묵인하며, 언급하지 않는 금기(tabu)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사적 체험에 대한 구술은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술자는 묻어둔 자신의 체험을 발언함으로써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구술 연구는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제3국 체류 시기에 발생한 하나의 생애사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전체 생애시간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인권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폭력에 대한 기존의 질적 연구들은 폭력의 체험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침묵이 제2의 트라우마를 생산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⁴⁵⁾ 이런 관점에

45)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한국여성에 대한 연구와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성폭력을 체험한 여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서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성폭력’ 혹은 ‘인신매매’ 사건들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관점에서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중장기적인 ‘체협’과 이것이 갖는 생애사적 맥락에서의 의미(meaning)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로 인한 여성들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참(cruel)에 관한 보고를 넘어 행위성에 주목하는 여성권 연구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잔혹한 폭력과 인신매매의 사건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주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선정적인 사례보고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마치 얼마나 더 비참한 인권유린의 경우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수집하여 보고하는 르포르쎈 읽히기도 한다. 즉,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연구의 관점은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인간이 없는 인권문제를 언급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발생의 동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의 대상자인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는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가부장적 정치권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스스로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중심에 서고 있는 적극적 행위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식량위기의 피해자’로 환원될 수 없는 놀라운 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수없이 사선(死線)을 넘고 폭력을 체험하며 한국 사회에 오게 된 ‘삶의 의지’를 가진 여성들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체험을 겪으면서도 자존감을 지키려는 여성들이다.⁴⁶⁾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개인 행위자와 행위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비참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그럼에도 존엄함(dignity)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체험에 주목하는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5) 초국가적 특성을 갖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찰 가능성

북한 여성들의 탈북과정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있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중국 및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에 의해 인간적 권리의 박탈을 체험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기획 탈북 등의 현상이 북한, 중국 및 제3국까지 연관된 조직적 연결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데려오고 싶은 북한 이주민들이 이와 같은 탈북 안내조직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북한 이주민들의 정착금이 중요한 물질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연구는 탈북 여성들의 구술을 통해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추론하는 연구, 북한을 떠나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 현황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 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 등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구획된 대상, 지역, 특정 생애시기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한 개인 행위자의 생애사적 연속성 속에 존재하는 사실 혹은 체험을 부분으로 채록해 조사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각각의 체험이 관여하는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정치적·담론적 틀을 조망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

46) 이 글에서는 필자의 사례 연구 결과를 모두 소개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자전적 수기를 참조할 수 있다. 최진이,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최진이』.

사회에서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고 개혁 개방된 중국사회를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한 개인의 삶 속에서 남한 정부가 지급한 정착금의 일부를 탈북 안내조직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 북한 여성은 한국 내 북한 이주민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보내는 돈이 불법 탈북 안내조직을 살찌운다(반(反)인권적)는 제3자의 비판에 대해, 그럼에도 송금되는 나머지 액수가 북한주민의 생존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이해한다.

이처럼 국가 사이의 경계를 횡단하며 조직되는 복합적인 행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신의 인간적·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의 생애사적 체험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는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 이와 같은 초국가적 경험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접근 방식이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체 생애사를 통해 구조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은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특정한 생애시기에 발생한 ‘사건(happening)’으로 환원시켜 고찰하는 연구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둘째, 매매혼, 강제 성매매, 성폭력 등과 결합된 북한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언어화되지 못한 채 분절되거나 육화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숨겨진 형태’

로 현존하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재구성’하는 데 질적 연구방법론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북한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가 비참한 사건에 대한 선정적 보고로 제한되거나, 혹은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행위자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은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비상한 의지를 가진 여성들의 행위지향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넷째, 생애사적 연속성 속에서 개인의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은 국가 간 경계를 오가며 초국가적 특성을 갖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국가주의의 틀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연구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질적 연구방법론은 만병통치약이거나, 혹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허풍선이 도구(tool)일 것이다. 오히려 질적 연구는 좀 더 많은 연구자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과학연구의 성과뿐 아니라, 객관성 너머에서 일상적 체험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권리와 노력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인간이해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각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방법론적 도구(tool)가 ‘도구적 원리’를 넘어설 때일 것이다.

■ 접수: 10월 27일 / ■ 채택: 12월 4일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작,” 한국인권재단 엮음, 『한반도 평화와 인권 2』(서울: 사람생각, 2002).
-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14호(2005), 6~34쪽.
- 노옥계,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
- 다네마르크, 베르트 외,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이기홍 옮김(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서울: 후마니타스, 2008).
-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집 1호(2002), 241~264쪽.
-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2006), 33~55쪽.
- 이영심, “두만강을 두 번 넘나들기까지 좁쌀 알처럼 흩어진 탈북자들, 과연 그 수는 ……,” 북한연구소 펴냄, 『북한』, 제418호(2006), 174~181쪽.
- 이희영, “사회화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120~148쪽.
- _____,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체험과 서사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5호(2007), 98~133쪽.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삶,”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관련 연구보고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조영아·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호 1권(2005), 17~35쪽.
- 조효제, 『인권의 문법』(서울: 후마니타스, 2007).
- _____, 『인권의 풍경』(서울: 교양인, 2008).
-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방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

- 론』(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최진이,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최진이』(서울: 북하우스, 2005).
- 홍민, “북한 연구방법론 재고,” 『정치비평』, 상반기(2003), 177~209쪽.
-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서울: 정토출판사, 1999).
- _____,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서울: (사)좋은벗들, 2007).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8).

외국문헌

- Adorno, T. et al.,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Frankfurt am Main: Luchterhand, 1972).
- Denzin, Norman K., *Interpretive Biography*(London: Sage Publications, 1989).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New York: Basic Books, 1973), pp. 3~32.
- Loch, Ulike, “Grenzen und Chancen der narrativen Gesprächsführung bei Menschen mit traumatischen Erlebnissen in der Kindheit,” Schaeffer et al. (ed.), *Qualitative Gesundheits- und Pflegeforschung*(Bern, Göttingen, Toronto & Seattle: Verlag Hans Huber, 2002), pp.233~246.
- Medica Mondiale e.V.; Marlies W. Froese; Ina Volpp-Teuscher(eds.), *Krieg, Geschlecht und Traumatisierung: Erfahrungen und Reflexionen in der Arbeit mit traumatisierten Frauen in Kriegs- und Krisengebieten*(Frankfurt am Main: IKO-Verlag fue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1999).
- Rosenthal, Gabriele,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Frankfurt/New York: Campus, 1995).
- Schütz, Alfred; Luckmann, Thomas, *Strukturen der Lebenswelt. Bd.I*(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8).
- Schütze, Fritz,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Martin Kohli; Robert Günther(eds.).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Stuttgart: J. 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1984), pp.79~117.
- Terr, Lenore, *Schreckliches Vergessen, beilsames Erinnern. Traumatische Erfahrungen drängen ans Licht*(Muenchen: Kindler, 1997).

기타자료(구술 인터뷰)

탈북자 김주희 인터뷰(2006.5.27).

탈북자 이열란 인터뷰(2008.1.31).

탈북자 유지민 인터뷰(2008.8.8).

Methodological Challenges for Research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Yi, Hee-Young(Daegu University)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qualitative methodology for research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Firstly, North Korean women's human rights are characteristically constituted in the course of whole life times. From this point of view, qualitative methodology provides the possibility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frame, in which human rights are easily reduced to a 'happening' attributed to a certain life time. Secondly,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e.g. through bought marriages, forced prostitution, sexual violence etc., are segmented and somatized, so that they cannot be verbalized. To reconstruct this 'hidden' violation of human rights, qualitative methodology can offer an apt alternative. Thirdly, qualitative methodology, with its attention to the actor, tries to understand the action-orientation of North Korean women, who, despite the cruel reality, perform a specific longing for

dignity as human beings. Fourthly,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life experiences within the biographical context, qualitative methodology can be an important way to understan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beyond nationalism.

Keywords: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Qualitative methodology, Biographical research, Violence, Everyday life, Actor, Nationalism